

천연기념물 265호 오골계 축제의 현장



◀ 오골계의 넋을 기리는 오유공제



▶ 6대째 이어져 온 오골계 축제의 전통이 이어오고 있는 오골계 축제

다채로운 행사 이어져

제 5회째를 맞이한 오골계 문화제(www.ogolgye.com)가 지난 4월 28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오골계 농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골계 백일장, 오골계 알에 그림 그리기, 오골계 인형극, 닭싸움, 닭울음 크게 흉내내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사람들을 위해 희생된 오골계의 넋을 위로하는 오유공 위령제도 거행되면서 참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오골계 관련 제품들



▲오골계 부화과정 등 전시



▲닭싸움 놀이

제공해 주었다.

논산시 및 문화재관리청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03년 오골계 축제를 처음 개최하면서 세간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5 회째를 맞이하는 오골계축제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리에 치뤄졌다. 특히 오골계 전시장, 농장연혁, 오골계알 줍기 행사 등은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어 가족들끼리의 방문이 많았다.

임금께 진상한 오골계

‘연산 오골계’는 지난 1980년에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는 ‘화악리 이래진 오골계’로 상표등록되어 사육되어지고 있는데 (주)농업회사법인 지산농원을 설립한故이래진 사장의 자제인 이승숙 사장이 천연기념물 지정 사육인으로 지위를 승계받아 업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오골계가 길러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허준선생의 동의 보감에 그 생김새와 약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조 이전부터 길렀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연산 오골계는 조선조 19대 숙종 임금이 중병을 앓던 중 연산오골계를 드시고 건강을 회복한 후부터 충청지방의 특산품으로 해마다 임금님께 진상되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또한, 연산군 때에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정승들까지도 오골계를 먹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벼슬을 빼앗고 귀양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오골계의 우수성과 희귀성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승숙 사장은 조선 태조의 셋째아들인 익안대군의 후손으로 11대부터 화악리에 정착하여 오골계를 키웠으며, 19세기에는 5대조부인 통정대부가 25대 철종임금께 진상할 정도로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 이후로 6대째 이 사장의 가족들이 오골계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황기탕, 오골계알 등 특산품 생산, 보급

문화재청에서는 연산화악리 오골계의 혈통보전을 위해 최소한 500수를 보호 사육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오랜 근친교배의 부작용으로 우량종계 선발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산농원에서는 보다 나은 종계를 선발하기 위해 3,000마리를 확보하여 기르고 있다.

지산농원은 황기탕, 오골계 초란, 오골계알, 육골죽 등을 개발해 오골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는 오골계 식당을 운영하며 농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임금님께만 진상하던 오골계의 참맛을 전달해 준다.

이승숙 사장은 초대 지정사육인이셨던 선친께서 2002년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오골계에 상속한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연산오골계를 지키고 후세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